

서간체 소설의 문학교육적 의미 — 〈제야〉,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를 중심으로

김수지 한양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수료(제1저자)

김서율 한양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공동저자)

* 이 논문은 제71회 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2020. 6. 13.)에서 우수 포스터상에 선정
된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서론
- II. 서간체 소설의 문학적 자질
- III. 서간체 소설의 문학교육적 가치와 효용
- IV. 결론

I. 서론

이 연구는 서간체 소설의 문학교육적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로, 현대사회의 편지가 지니는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간체 소설의 교육적 가치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근대 이후 급속도로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의 삶과 문화의 변화를 촉발하였는데, 이 변화에는 매체의 발달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인터넷 네트워크의 구축, 개인 스마트 기기의 보급은 미디어 플랫폼의 구축, 문자 텍스트에서 복합양식 텍스트로의 변화, 쌍방향 소통의 일상화로 이어졌다. 과학기술과 매체의 발달은 현대사회의 유동성¹⁾과 즉시성, 개인화 현상을 촉발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부단히 발생하는 개인화 현상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욕구를 충족하고 쉽게 전환을 일으키도록 유도하였으며, 뉴 미

1) Bauman(2009)은 사회의 유동성에 주목하여 현 시대를 ‘액체근대(liquid modernity)’라고 명명한 바 있다. Bauman은 근대의 은유로 유동성, 액체성을 제시한다. 근대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획득한 시대이며 이전의 견고한 시대를 녹이고 해체하는 시대이다.

디어의 대중화는 즉각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한 즉시성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였다.²⁾

그렇다면 즉시성의 시대에 편지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 연구는 편지가 현대사회에서 유효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서간체 소설이 한 시대를 풍미한 한시적 장르가 아니라 192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지·존속되어 온 장르라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우편 문화의 정착과 서간체 소설의 발흥이 근대 자아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편지와 서간체 소설의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화로 특징되는 현대사회에서 자아의 탐색과 형성이 핵심 가치라는 점에서 서간체 소설의 문학교육적 가치와 효용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간체 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문학작품 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둘째, 서간체 소설이 현대사회에서 지니는 문화적 의미를 고찰한다. 셋째, 서간체 소설의 문학교육적 가치를 탐색한다.

1. 편지의 사회문화적 효용

기술의 발전과 뉴 미디어의 등장은 사회 변화를 가속화하였고, 문화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현대사회는 즉시성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처럼 정보의 생산, 수용, 공유가 즉각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사회는 쌍방향 소통을 강조한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사회가 쌍방향 소통과 경계의 허물어짐, 상호작용을 독려하는 동시에 개별성의 확보, 자아정체성의 확립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과정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개인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탐색과 자아 성찰이 선행되고, 이를 위한 물리적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연결될 것,

2) 즉시성이 높을수록 주체와 대상 사이의 매개가 밀착된다. 개인화는 즉시성에 대한 욕구를 촉발하며, 즉시성의 욕구가 충족되면 이는 다시 개인화를 강화하는 순환이 이루어진다.

경계를 허물 것, 자신을 드러낼 것을 요구한다. 사회와 미디어, 타인의 자극 등에 즉시 반응하고 응답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환경에서 개인이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작용적인 대화를 갈구(박은정, 2010: 33)하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와 개인을 향한 사회적 요구가 결합된 문화현상으로 멀티 페르소나³⁾의 일상화를 들 수 있다. 개인의 다중 정체성을 의미하는 멀티 페르소나는 전통적인 의미의 페르소나와 마찬가지로 일상과 영향을 주고받은 물론, 취향과 취미, 흥미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강민희·이승우, 2020: 3). 멀티 페르소나의 대중화는 그 의미와 기능에 대한 가치 판단을 요청하고 있다. 개인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멀티 페르소나는 개인의 고정된 자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아 성찰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만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는 상황 외에도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접촉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멀티 페르소나를 형성하고 내보이게 된다(Chako, 2018: 187-194). 끊임없이 연결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멀티 페르소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멀티 페르소나의 잦은 생성과 분화 속에서 자아 해체와 분화라는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누가 메시지를 쓰고 있는지, 누가 메시지를 언제 읽었는지, 누가 메시지에 답했는지의 상황을 항시 확인할 수 있는 즉문즉답 방식의 사회는 반사적으로 이러한 의사소통 상황과의 분리에 대한 욕구를 낳는다.

이와 같은 상황적 맥락에서 편지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다. 편지는 기본적으로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물리적 거리를 전제한 소통 방식이며, 일방

3) 멀티 페르소나(multi persona)는 일명 ‘부캐’라는 용어와도 상통한다. 부캐는 본래 게임에서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캐릭터 외에 새로 만든 부캐릭터를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최근 평소의 자신과 다른 새로운 성격이나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개념의 일상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항 매체이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의 영향을 어느 정도 차단한 상태에서 사유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편지를 쓰는 필자는 사고하고 생각을 글로 옮기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편지를 읽는 독자 역시 자신이 빨리 내용을 이해하고 즉시 답을 해야 하는 압박이 적기 때문에 여유 있게 글을 읽고 생각할 수 있다. 이로써 편지를 쓰고 읽는 것은 인간의 성찰적 사고를 확장하고 자기 탐색의 과정을 동반할 수 있다.

또한 편지는 감성을 키우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감성과 타성을 강조하는 탈근대로 나아감에 따라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강조하는 소통은 감성적 소통(정용교, 2009: 204)을 말하는 것이 되었다. 인간의 감성 능력은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은 사유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해소한다. 편지는 바로 이러한 감성을 자극하고 증진하고 확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자신의 마음을 상대에게 진솔하게 전하고 싶을 때 여전히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사회문화적으로 편지의 위상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편지가 여전히 유의미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편지와 편지 형식의 서간체 소설을 자아 성장이나 감성 능력 증진 등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제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편지의 문학적 형상화

편지[書柬]는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일방향적 소통 구조를 취하는 산문 양식으로, 편지의 내용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정보, 발신자의 의도를 담고 있다. 편지는 주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전제된 상황에서 사용되는 수단이다. 편지는 수신자가 결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용건 중심적이다. 또한 수신자가 받아 읽거나 답장을 보내서 상호전달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그 서간 기능이 일단 완료된다(이재선, 2001: 192)는 특징이 있다. 내밀성, 구술성, 고백적 성격 등의 편지의 특성은 소통 구조에 말미암

는 것인데, 이러한 특성을 편지 형식을 취하는 서간체 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편지의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형성된 서간체 소설은 독특한 장르적 특성을 보인다.

국문학사에서 서간체 소설의 유행 시기는 1920년대로, 서간체 소설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닌 소설 형식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간체 소설은 이광수의 <어린 벗에게>(1917)이며,⁴⁾ 1920년대에는 소설이나 시에서 편지가 활발하게 활용되어 문학의 거의 모든 하위 갈래에서 눈에 띄는 장치로 등장하였다(장인수, 2013: 439). 당시 서간 양식의 유행 요인으로서는 고전 문학의 서간 삽입 문화에 대한 발전적 계승과 외국 서간체 소설의 영향(류리수, 2002: 200), 근대화에 따른 우편 문화의 발달과 근대적 자아의 발생과 확립을 들 수 있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근대 우편제도의 수립은 편지의 대중화로 이어졌고, 사람들이 편지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자 문학에서도 편지가 문학적 장치로 활발하게 사용되게 된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나타난 미디어 플랫폼의 구축과 음성, 그림, 사진, 영상과 문자를 접목한 복합양식 텍스트의 보편화 역시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편지의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문학이 생산되는 당시 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근대 서간체 소설이 근대 우편제도의 수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소설 양식이라면, 현대 서간체 소설은 뉴 미디어의 대중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설 양식인 것이다. 이처럼 서간체 소설이 한 시대를 풍미한 한시적 장르가 아니라 현재까지 생산되어 온 장르인 것은 사회 변화에 맞물려 함께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간체 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간체 소설의 시대적 변이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간체 소설의 사례로 염상섭의 <제야>(1922)와 김초엽의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2019)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920

4) 논자에 따라서는 전 단계의 서간체 소설로 보기도 한다.

년대와 2010년대라는 시대적 차이가 극명한 두 작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시대에 따른 양식의 변모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야〉는 종이에 쓴 전통적인 편지 형식을 차용한 초기 서간체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한편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는 종이 편지 형식의 이야기 안에 음성과 화면으로 기록된 편지가 삽입된 구성으로, 전통적인 편지 형식과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편지 형식을 함께 보여주는 서간체 소설의 현대적 변이형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편지의 형식 변화와 문화적 가치, 그리고 서간체 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꼼꼼히 살피고 나아가 문학교육적 가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서간체 소설의 문학적 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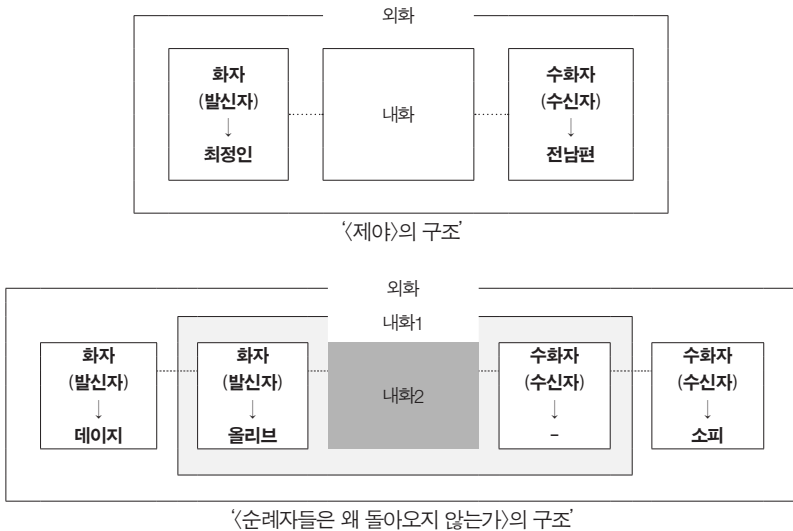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형식적 자질과 내용적 자질로 나누어 서간체 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형식적 자질은 편지의 문학적 형상화 과정에서 나타난 것 중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언어적 표지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내용적 자질은 서간체 소설의 문학적 특성으로 두드러지는 서사적 특질들을 의미한다.

1. 서간체 소설의 형식적 자질

1) 서간체 소설의 액자식 구성

서간체 소설은 편지 형식을 매개로 하거나, 소설의 서술이 전적으로 편지나 또는 그 교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액자소설의 근대적 변이·대체형식(이재선, 2001: 191)이라 할 수 있다. 서간체 소설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편지 내용에 해당하는 대화와 편지 바깥의 발신자와 수신자

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외화로 구성된다. 이 연구의 대상인 두 작품의 구조를 도식화⁵⁾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제야〉와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의 구조

〈제야〉는 발신자인 최정인이 수신자인 전남편에게 보내는 답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는 첫 번째 내화에 해당하는 데이저가 소피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 올리브가 남긴 음성 기록이 두 번째 내화로 삽입된 이중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편지 바깥의 이야기인 외화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내화를 통해 추론 가능한 영역에 존재한다. 이러한 작품 구조는 이야기의 진실성, 개연성을 강화

5) 본고에서 제시한 작품의 서사구조는 Chatman의 서사 소통 모형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Chatman은 '실제작가 - (내포작가) - 화자 - 독자 - (내포독자) - 실제독자'로 이어지는 서사물의 의사소통 구조를 도식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서간체 소설에서 화자는 편지의 발신자이며, 수화자는 편지의 발신자가 상정한 예상독자이자 편지의 수신자가 되고, 소설의 스토리는 편지의 내용에 해당한다.

하는 한편, 독자에게 다른 사람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비밀을 엿보는 듯한 인상을 주어 흥미를 끌기도 한다.

2) 편지에 대한 직접 명시

서간체 소설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언어적 표지는 편지의 문학적 형상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 형적이다. 언어적 표지의 하나로 편지임을 직접 명시한 대목을 찾아볼 수 있다. 두 작품에서 최정인과 데이지는 편지를 쓰는 상황을 설명하고 편지임을 직접 밝힌다. <제야>의 경우 작품 안에서 최정인이 전남편에게 받았던 편지를 언급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이 글이 답장에 해당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붓대를 들고 앉아서, 그 주옥같은 당신의 필적을, 또 한 번 뵈오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을 만나보지 못하는 대신에, 당신의 필적이라도 뵈오려 합니다. (염상섭, 2006: 168)

이 편지가 네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내가 떠났다는 소문이 퍼진 이후이겠지. (김초엽, 2019: 9)

편지는 일반적으로 수신자와 발신자의 물리적 거리가 먼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두 작품의 발신자와 수신자 역시 대면하여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 최정인과 전남편은 따로 살고 있어 편지를 통해서 소통하는 상황이며, 데이지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소피에게 편지를 남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맥락은 편지 형식의 차용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3) 편지 형식의 차용

기본적으로 편지는 ‘서두(수신자, 첫인사, 안부) - 용건(목적, 사연) - 결미

(끝인사, 날짜, 발신자)’의 형식을 갖춘다. 서간체 소설의 경우 작품에 따라 다소 변형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편지의 기본 형식에 따라 내용이 전개된다. 예를 들어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의 마지막 문장은 “그날을 고대하며, / 데이지가.”로, 편지의 결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

또한 편지 형식의 차용 표지로 편지의 발신자가 예상독자인 수신자를 의식하거나 호명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제야>의 최정인은 ‘당신’ 또는 ‘우리’를,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의 데이지는 ‘소피’ 또는 ‘우리’를 거듭 호명한다.

운순하고 순결하신 당신에게 그 같은 시련을 하고,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게 한 것이, 벌써 일종의 아이러니컬한 숙명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염상섭, 2006: 94-95)

소피. 우리가 왜 ‘서로’ 사랑에 빠지지 않는지를 생각해 본 적 있어?

(김초엽, 2019: 52)

편지는 예상독자가 명확한 글로, 예상독자의 호명은 메시지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것임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관련된 서간체 소설의 서술적 특징으로 정보의 성격에 따른 양적 차등을 살펴볼 수 있다. 발신자만 아는 정보는 길게 기술하는 반면 수신자와 공유하는 정보는 간략히 기술하는 데서 한정된 지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편지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제야>에서는 ‘E’와의 일화는 사정을 세세히 설명하는 반면 ‘당신’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나’의 감정과 생각 위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한편 이전에 받은 편지 내용을 인용하는 등 공유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부분도 눈에 띄는데, 이는 소설의 실제독자를 고려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편지를 쓰게 된 경위와 목적을 밝히는 대목에서도 서간체 소설

의 형식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편지는 목적에 따라 정보 전달, 제안, 설득, 요청, 친교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편지에는 글의 목적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서간체 소설에서도 자연스럽게 편지의 기능이나 목적이 드러나는 장면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제야>에서는 답장을 쓰기로 한 상황과 부탁의 내용을 전하는 대목을,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서는 데이지가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와 소피가 편지를 읽고 자신을 이해해줄기를 바라는 내용을 전하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다.

2. 서간체 소설의 내용적 자질

1) 고백 서사와 개인의 내밀성

초기 근대 문학에서 자기 고백체의 등장은 개인의 자아 형성과 내면세계 구축과 관련이 있다. 한국 근대 문학도 근대적 자아로서 개성의 발견, 새로운 형식의 탐구 과정 등이 나타나는데, 이 과정의 결과로서 1920년대 초기의 편지, 일기 형식이 차용되었던 것이다(최혜실, 1994: 10).

<제야>의 주인공인 최정인은 세계가 급변하던 시대에 신여성으로서 당차게 삶을 살아내고자 했으나 뜻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실패한 삶의 장면을 고백하고 있다. 남편과의 결혼 이전 자유연애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 결혼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느낀 구습적인 혼인제도의 불합리성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내면을 솔직히 고백하는 편지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근대적 자아를 형성한 인물을 드러내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이때 고백은 자아 동일성 혹은 신뢰감이 상실된 상태에서 특정 대상에게 그 상실된 내면을 드러내 보이는 행위(최인자, 1994: 132)에 해당한다. 죽기 직전이라는 극적인 상황에서, 신여성으로서의 자아가 좌절된 최정인이 남편에게 자신의 무너진 내면세계를 유서를 통해 고백하는 것이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의 주인공 데이지는 시초지로 떠나기

전, 친구인 소피에게 편지를 남긴다. 마을의 오랜 관습인 순례와 순례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된 자아 동일성의 상실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생각과 행동을 전달함으로써 내면의 자아를 형성한 한 개인으로서의 고백을 보여준다.

창작 시기가 100년가량 차이나는 두 작품에서 인물의 내면 고백을 위해 편지라는 동일한 양식을 빌리고 있다는 것을 통해, 자아 발견의 시기인 근대부터 자아의 해체가 화두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간체 소설이 지닌 문학적 가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들 서간체 소설은 자아가 단순히 내면의 독백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 발화함으로써 정의되고 구체화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 인물의 자기 고백은 외부의 개입 없이 주체적으로 내면의 다양한 충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앞서 작품들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편지는 발신자가 염두에 둔 수신자가 정해져 있다. 발신자는 수신자와 자신의 관계를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한다. 따라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면의 이야기, 둘 사이의 비밀, 업무상 기밀 등 외부인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나 특정 인물에게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 편지를 활용하게 된다. 즉 편지는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들이 사적 영역의 내밀성⁶⁾을 공유하는 소통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서간

-
- 6) 내밀성(intimacy)이란 속내를 드러내는 관계, 은밀한 내면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밀성의 특징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내밀성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내적 관계를 통해 정의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내면적인 확신의 문제다. 둘째, 내밀성은 자신의 내밀한 세계를 보호하려는 욕망이며, 이로 인해 외부세계로부터 거리를 두는 경향이 나타난다. 셋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내적 관계로서 내밀성은 자기 자신을 보는 자기 시선이며, 자신에 대한 관찰이자 내성(內省)의 수단이다. 1인칭 화자의 고백적 소설이나 일기와 같은 문학적 형식이 급속히 부상한 사실이나, 내면의 반성능력이 세계를 구성한다는 칸트의 철학 등이 강력한 지배력을 획득하게 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내밀한 속내를 터놓을 대상은 세속화되는데 그 일차적 대상은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이다. 이에 따라 연인관계, 어머니-어머니 관계, 부부관계가 내밀성에 있어서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다섯째, 내밀성은 개인적인 고유성이라는 점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소유가 된다. 즉, 내밀성은 개인

체 소설은 내밀성을 지닌 인물이 등장하는 장르로, 편지 형식을 통해 한 인간을 개인의 이름으로 불러내고 편지의 소통 구조 속으로 끌어들이함으로써 사적 영역의 공론화라는 소설 장르적 규약을 완성(노지승, 2002: 355)한다.

〈제야〉의 최정인은 답장 격의 편지를 쓰고 있다. 수신자는 자신의 전남 편으로, 편지의 내용은 실패한 둘의 결혼 생활을 비롯한 최정인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회고를 담고 있다. 최정인은 출생의 배경, 자유연애의 경험 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자신의 내면을 지배했던 생각, 가치관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최정인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껏 내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내밀한 세계를 처음으로 편지를 통해 고백하고, 또 마지막까지 자신의 내부세계를 지키기 위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반드시 태워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자신의 내면세계를 드러냄으로써 억압적인 외부로부터 자신의 내면을 지키내고자 함과 동시에, 이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내적 사유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의 데이지가 친구인 소피에게 쓴 편지에는 데이지 자신의 내밀한 사유가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금서 구역에는 올리브의 기록이 숨겨져 있다. 두 이야기 모두 필자의 내밀한 사정을 담고 있다. 데이지 또한 최정인과 마찬가지로 마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일어난 내밀한 사유의 결과를 편지를 통해 털어놓게 된다.

언급한 두 작품 속의 인물들은 내밀성을 지닌 개인으로, 편지를 통해 자신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수신자에게 자신의 내면세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이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한다. 이는 편지가 한 개인이 치열한 사유 끝에 구축한 자신의 내면세계를 특정한 인물에게 전하는 데에 효과적인 형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데에 적합한 매체

의 내면에 관한 것이요, 개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적인 것이며 사생활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이다(이진경, 2007: 361-363).

임을 보여준다. 또한 두 작품의 수신자는, 발신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기 내면을 가장 가감 없이 터놓을 수 있다고 판단한 존재들이다. 발신자는 특수한 관계의 수신자에게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관찰하고 자아 성찰의 국면을 맞게 된다.

고백의 가장 적합한 형태인 편지 형식을 취하는 서간체 소설은 현재까지도 유의미한 장르이며, 자아를 형성하고 내면세계를 구축하는 시기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학습 제재로 기능할 수 있다.

2) 자아 개념과 자아정체성의 형성

Elliott(2007)에 따르면, 정체성은 개인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사고와 성향과 느낌과 욕망의 양식화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 질서와 맺는 관계 속에서 주관적 경험이 구조화되는 것을 통해서 수립된다. 서간체 소설의 인물들은 주체적인 행위와 경험, 그리고 그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제야〉와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의 두 주인공은 각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편지를 쓴다. 이때 편지는 인물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중대한 선택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한다. 두 인물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감과 동시에 완성하기 위한 선택을 단행한다. 이 선택의 결과로 두 인물은 마침내 자아를 형성하고 자아정체성 확립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자아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편지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난 갈등과 선택의 결정적 인 계기 등을 외부의 특정 인물에게 전달하는 매개이자 자신의 내면세계를 성찰하고 정의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야〉의 최정인은 자신의 삶 전반에 걸친 세계와의 투쟁 경험을 반추하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최정인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남편에게 편지 한 통을 받는다.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될지라도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 결심을 한 상태

였지만, 편지를 계기로 최정인은 끝내 죽음을 선택하기로 마음먹는다. 사회의 통념을 이겨내고자 했던 최정인의 삶에 대한 의지가 가부장적 인물의 시혜적인 편지 한 통으로 인해 꺾이고 만 것이다. 그러나 최정인은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자아를 다시 탐색, 구축하고자 하는 성장형 인물의 면모를 보인다. 연약하여 타인에게 조롱당하는 굴종적인 삶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삶의 지속과 마감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다.⁷⁾ 이때 편지는 최정인이 삶을 회고하고 이를 반성하는 매개로 기능한다. 사회적 통념의 극복 의지와 성공한 삶에 대한 욕망 간의 갈등 속에서 욕망을 선택했던 최정인은 삶을 돌아보며 반성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지난날에 대한 자기 성찰은 완성된다. 이로써 최정인은 자아정체성 확립에 이르게 된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의 데이지는 자아정체성을 탐색하는 자아 성장형 인물이다. 데이지는 해마다 순례지로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여행’을 선택한다. 이때 편지는 데이지가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가졌던 궁금증과 그 궁금증의 해답을 찾은 과정을 친구인 소피에게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데이지는 편지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얻은 답을 토대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시초지로의 여행’이라는 실천을 단행하기까지의 과정을 기술한다. 편지 내용이 자아정체성 확립의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자아 형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과 성찰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데이지가 겪는 일련의 과정 또한 자아정체성 탐색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집단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아를 형성한다. 공동체의 존재와 그 뿌리에 대한 개인의 호기심이야말로 자

7) 작가 염상섭은 〈제야〉에 대해 “자살에 의하여 자기의 정화(淨化)와 순일(純一)과 소생(甦生)을 얻으려는 해방적 젊은 여성의 심적 경로를 고백한 것”(한기형·이혜령, 2013: 277)이라 언급했다.

아정체성 탐색 과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의 올리브도 내면의 성장을 위해 여행을 선택한다. 자신의 어머니를 찾기 위해 시초지인 지구로 떠난 올리브는 그곳에서 만난 델피와 사랑에 빠지고, 그녀와 함께 분리주의에 대항함으로써 여행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데이지는 올리브의 사례를 접한 후, 자신도 여행을 떠남으로써 성장을 위한 노력을 실천에 옮긴다. 데이지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순례자와 우연히 만나게 된 일, 금서구역에서 올리브의 이야기를 알게 된 일은 소피에게 남긴 편지를 통해 전달된다. 독자는 이 작품을 읽어나가면서 데이지가 타자를 인식하고 자아를 형성하고 또 성찰하며 자아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좇게 된다.

자아는 단순히 개인의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교류,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와의 접촉 경험을 내면화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때 편지가 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형성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성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III. 서간체 소설의 문학교육적 가치와 효용

1. 서간체 소설에 관한 국어교육학적 논의

서간체 소설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지금까지 국어교육에서 서간체 소설을 어떻게 다루어왔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서간체 소설이 편지 형식을 차용한 문학 장르라는 점, 편지가 소통 수단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여 문학교육 외에 작문교육과 매체교육 측면에서도 살펴보

고자 한다.

작문교육에서는 실용문⁸⁾의 하나로 편지쓰기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설명문, 논설문 등 실용문에 속하는 다른 양식에 비하여 약소하게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4학년 쓰기 영역에서 편지의 형식과 내용을 다루었고(교육인적자원부, 2007),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영역에서 목적에 따른 글쓰기의 예로 친교 목적의 편지 쓰기를 제시하였으며,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 친교의 내용을 표현하는 글쓰기의 예로 편지 쓰기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 2015).

[4 - 쓰 - (3)]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여 마음을 나누는 편지를 쓴다.

[내용 요소의 예]

- 편지의 형식 알기
- 읽는 이의 상황을 고려하여 알맞은 내용 선정하기
- 자신과 읽는 이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쓰기
- 자신과 읽는 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쓰기

[6국03-02]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글을 쓴다.

- 친교를 목적으로 글을 쓸 때에는 편지나 전자 우편을 이용할 수 있고, 단체에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

[12화작03-07]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친교의 내용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 친구나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같은 개인적 의사소통뿐 아니라 공적으로 감사, 축하, 격려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쓰는 사회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친교

8) 목적 부합성에 따라 실용문을 정서 표현, 친교, 정보 전달, 설득을 위한 글과 직업 세계에 필요한 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때 편지는 친교를 위한 글에 속한다(국립국어원, 2005: 11-12).

의 글을 써 보도록 한다.

작문교육 영역에서는 양식적 글쓰기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편지의 형식과 내용을 다루었으며, 주로 친교 목적의 글쓰기에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소통 수단인 편지의 기능과 유형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매체교육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과학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라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매체교육 영역에는 편지나 우편에 밀착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언어와 매체 영역에서는 ‘책, 신문, 전화, 라디오, 사진, 광고,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이동 통신 기기 등’을 매체로 언급하고 있다. 매체교육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추가된 영역이다 보니 디지털 매체에 보다 초점을 두는 한편 편지와 우편은 매체의 발달과 변화사적 수준에서 간소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문학교육 영역에서는 서간체 소설에 해당하는 문학작품을 교육 제재로 다루기는 하였으나 작품의 형식이나 문체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었을 뿐 장르에 초점을 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이는 문학교육에서 작품의 갈래 교육이 서정, 서사, 극, 교술이라는 큰 갈래와 시대별 주요 갈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외에 교과서를 살펴보면 문학교육의 활동 차원에서 인물의 입장에서 편지 쓰기, 인물에게 편지 쓰기 등 편지의 형식을 활용하여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정도의 교육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술 담론 차원에서도 서간체 소설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1920년대라는 시대에 유행한 장르에 대한 국문학적 연구, 외국 서간체 소설과의 비교 연구, 특정 작품에 나타난 편지의 상징성과 의미를 분석한 연구 등이 대부분이며 서간체 소설의 문학교육적 가치에 주목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⁹⁾

9) 서간체 소설의 장르에 관한 연구가 약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이처럼 기존의 국어교육에서 편지와 서간체 소설은 교육 내용 차원에서 다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비중이 작거나 소재 수준에서 활용된 경향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 서간체 소설의 교육적 가치와 효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간체 소설은 독특한 형식적·내용적 자질을 내포하고 있는 장르이며, 특히 내용적 자질 면에서 현재 문학교육에서 강조하는 자아 성장, 성찰적 사고, 의사소통 역량 등의 교육 목표와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이 서간체 소설의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탐색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2. 서간체 소설을 활용한 문학교육

1) 문학 지식 습득과 문학 능력 증진을 위한 문학교육

문학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문학 문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문학 능력의 향상(정재찬·최인자·김근호·염은열·이지영·최미숙 외, 2014: 62)에 있다. 문학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문학 지식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학 지식은 문학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풍요롭게 하는 토대가 된다. 한편 문학작품의 읽기는 문학 지식을 구체화하는 기제가 되는데, 이는 지식과 활동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서간체 소설의 장르적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서간체 소설은 특정 문학 지식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제재로 쓰일 수 있다. 앞서 Chatman의 서사 소통 모형을 참조하여 두 작품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서간체 소설은 발신자(화자)와 수신자(수화자)가 분명한 편지 형식을 취하므로, 다른 장르에 비해 서

에 비하여, 서간체 소설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소설 감상 교육의 일환인 구분승(2018)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편지의 교육적 효용이나 활용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았다. 독서교육, 작문교육에서 부수적으로 편지 또는 편지글을 다룬 논문들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편지글의 교육적 활용에 초점을 둔 연구는 전용표(2008) 정도가 있었다.

간체 소설을 볼 때 화자와 수화자의 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개념을 이해하기에 수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야>의 경우, 최정인이 전남편에게 보내는 답장에 최정인의 과거 경험과 일화가 포함되어 있다. 작품 구조를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발신자, 수신자, 메시지의 개념을 실제 작품과 연관 지어 파악하고, 문학작품의 인물과 서술자의 개념을 구분하여 이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간체 소설은 기본적으로 1인칭 시점에서 서술되어, 그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작품 내 시점이 변화하는 지점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시점, 문체 등을 다룰 때 효과적인 교육 제재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는 테이지가 쓴 편지에 올리브의 이야기가 삽입된 이중 액자식 구성이다. 독자는 작품을 읽으면서 두 이야기의 서술상 특징인 문체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바깥 이야기는 테이지가 소피에게 말하는 듯한 구어체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 삽입된 이야기는 올리브의 독백으로 문어체로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단일 작품의 분석을 통해 시점, 문체, 플롯 등의 문학의 기본 개념을 학습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서간체 소설과 다른 장르 간의 비교를 통해 문학 용어와 개념을 학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한 장르 안에도 개별 작품의 서술 방식이나 서사 구조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서간체 소설이 뚜렷한 장르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용을 찾을 수 있고, 개별 작품의 독자적 특성 또한 교육 제재로서의 가치를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자기 성찰·계발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신장을 위한 문학교육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학습자에게 미디어를 통한 자발적인 자기 노출과 타인과의 교류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청소년에게 소통은 유희이자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타인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언제나 타인과 연결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자아정체성의 형성은 외부의 접촉과 접촉을 통한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나, 매 순간 일어나는 타인과의 교류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사색하여 성찰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현대의 환경에서는 개인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연결시키는 성찰 과정의 일부로서 자아의 변화가 추구하고 구성된다(Giddens, 1991: 82). 이에 뉴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의 관계와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깊이 있는 사색과 내면 탐색을 통한 자아 성찰의 중요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역량과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모두 목표로 삼은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의 인식적 기능¹⁰⁾에 주목하여 서간체 소설을 활용한 문학교육을 통해 두 역량을 효과적으로 신장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구안할 수 있을 것이다.

서간체 소설의 인물은 편지 형식을 빌려 자신의 내면세계를 구체화하여 표현한다. 편지 형식이라는 서사적 장치는 독자와 작품 속 인물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작용한다. 자연스럽게 독자는 인물의 내면세계와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작품에 더욱 이입하게 되며, 독서 과정에서 독자의 의사소통 능력¹¹⁾이 발현된다.

그뿐만 아니라 문학을 통한 추체험¹²⁾은 학습자가 자기 성찰·계발 역량

10)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정리하거나 알리기 위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개인과 집단의 삶의 모습은 물론 욕망, 감정, 지식, 이데올로기 등이 총체적으로 녹아든다. 따라서 그것을 산출하고 수용하는 동안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경험했어도 그 뜻을 잘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각기 따로였던 것을 통합하여 정리하고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설명이나 논증 같은 답화 양식의 인식적 기능과 구별되는, 이야기 특유의 인식적 기능이다(최시한, 2015: 68).

11) 의사소통 능력은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와 관계를 점점·조정하는 능력이다(교육부, 2015: 3).

12) Dilthey는 문학이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삶의 전체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문학작품은 재체험을 시키면서, 독자에게 적합한 심적 과정의 경과 속에 그

을 함양하는 데에 기여한다. 학습자는 작품 속 인물의 성장을 대리 체험하고 이를 자신에게 투영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서간체 소설이 효과적인 교육 제재로 다루어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간체 소설의 인물은 주체적으로 자아 탐색과 성찰을 도모함으로써 자아 성찰의 과정을 겪으며, 성장형 인물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때 자아정체성은 과거의 회상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예견 사이의 긴장 속에서 성립(임경순, 2000: 114)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간체 소설의 주인공은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자신이 회고하는 과거 경험과 편지를 발송한 이후의 미래까지 염두에 둔다. 자기 고백의 과정에서 인물들은 자기 관찰과 성찰을 함께 수행한다. 따라서 독자와 인물 간의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 작품을 통한 추체험을 통해 학습자가 의사소통 역량과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간체 소설의 문학교육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3) 작문교육·매체교육과 연계한 문학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국어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작품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익히는 데 있다. 국어교육은 영역에 따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등으로 나누어지지만 공통적으로 국어 능력의 신장에 목적이 있다. 영역별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동시에 융합·통합교육을 지향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간체 소설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때에도 문학교육에 한정하지 않는 시각이 필요하다.

여러 영역을 연계한 국어교육의 차원에서 서간체 소설의 교육적 효용은 의사소통 역량과 문화향유 역량의 함양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가 소통과 감성, 문화의 향유를 강조하는 한편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친밀성

의 온 자질을 활동하게 만든다(구인환·박인기·우한용·최병우, 2017: 88).

과 진정한 소통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시대 국어교육의 사회적 책무는 국어사용을 위한 소통 가치를 반영하고 확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박인기, 2018: 18). 소셜 네트워크의 구축과 뉴 미디어의 보편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디지털 문화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향으로 사람들은 소통과 감성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서간체 소설을 학습자의 감성 능력 신장을 위한 교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편지를 읽고 쓰는 행위는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동반하며, 이는 개인의 정의적 사고 발달로 이어진다. 편지 형식을 차용한 서간체 소설을 읽고 쓰는 활동은 인간의 정의적 사고를 자극하고 감성 능력을 신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서간체 소설은 우편제도의 수립, 편지의 대중화라는 사회적 배경에서 등장한 발생적 맥락부터 작문교육, 매체교육과 관련이 있다. 작문교육 차원에서는 편지쓰기 교육이 공식적인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었던 시기가 있고, 매체교육이 디지털 매체에 방점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전 시대의 매체들도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특히 자아 성찰 교육에서 작문교육과의 연계를 모색할 수 있다. 앞서 서간체 소설의 주인공이 자아 성장형 인물이며, 독자는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인물의 자아 성찰과 자아정체성 형성 과정을 좇아 나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학습자가 문학 독서 행위를 넘어 그 연장선상에서 스스로 글을 쓰는 일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자아 성찰 과정이라 할 수 있다(류수열·한창훈·정소연·김정우·임경순·한귀은 외, 2014: 24). 따라서 서간체 소설 작품 읽기를 통해 형식적·내용적 자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쓰기 활동을 통해 주체적인 자아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융합·통합교육이 강조되는 시대에 서간체 소설은 문학교육과 매체교육을 연계하는 효과적인 제재로 기능할 수 있다. 서간체 소설 장르의 발

생과 변화 과정은 매체의 발달사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서간체 소설을 읽고 편지의 문학적 형상화 과정에서 드러난 서술상 특징을 매체의 기능 및 유형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수단으로의 매체의 특성을 학습하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와 같이 현대 작품에는 음성, 영상을 결합한 복합양식 텍스트의 특성이 반영되기도 하므로 서간체 소설을 아날로그 미디어뿐만 아니라 뉴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는 교육의 제재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IV. 결론

이 연구는 편지와 서간체 소설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서간체 소설의 문학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이다.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생명력을 갖춘 장르인 서간체 소설의 문학적 자질을 탐색하기 위하여 염상섭의 <제야>와 김초엽의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편지의 문학적 형상화 과정에서 나타난 서간체 소설의 형식적 자질로는 액자식 구성, 편지에 대한 직접 명시, 편지 형식의 차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서간체 소설의 내용적 자질로는 고백 서사와 개인의 내밀성, 자아 개념과 자아정체성의 형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서간체 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바탕으로 교육적 가치를 고찰하고 문학교육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서간체 소설을 활용한 문학교육의 가능성으로는 문학 지식 습득과 문학 능력 증진을 위한 문학교육, 자기 성찰·계발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신장을 위한 문학교육, 작문교육·매체교육과 연계한 문학교육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서간체 소설의 문화적 의미와 교육적 효용을 새롭게 밝히고

문학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향후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적인 교육 내용과 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실천태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21.1.31. 투고되었으며, 2021.2.18. 심사가 시작되어 2021.3.16.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자료

- 김초엽(2019),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서울: 허블.
염상섭(2006), 『두 파산(염상섭 단편선)』, 서울: 문학과지성사.

논저

- 강민희·이승우(2020), 「멀티 페르소나의 사례와 의미 - ‘부캐’를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9(2), 123-143.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세종: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구본승(2018), 「서간체 소설 감상 지도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구인환·박인기·우한용·최병우(2017), 『문학교육론(제7판)』, 서울: 삼지원.
국립국어원(2005), 『좋은 글의 요건: 실용문을 중심으로(국립국어원 2005-1-13)』, 서울: 국립국어원.
노지승(2002), 「1920년대 초반, 편지 형식 소설의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20, 351-379.
류리수(2002), 「한일 근대 서간체소설을 통해 본 신여성의 자아연소: 아리시마 타케오(有島武)의 돌에 짓눌린 잡초(石にひしかれた草)와 염상섭의 除夜」, 『일본학보』 50, 197-212.
류수열·한창훈·정소연·김정우·임경순·한귀은·서유경·조하연·이민희·최지현·김혜영·오지혜·황혜진(2014), 『문학교육개론Ⅱ』, 서울: 역락.
박은정(2010), 『스토리텔링 인지과학 만나다(콘텐츠 시대의 문학과 예술)』, 파주: 이담북스.
박인기(2018), 「국어교육의 사회적 책무: 국어교육과 사회 변동의 상호성」, 『국어교육』 160, 1-35.
이재선(2001), 『한국단편소설연구』, 파주: 한국학술정보.
이진경(2007), 『문화정치학의 영토들(현대문화론 강의)』, 서울: 그린비.
임경순(2000), 「자아 정체성 형성과 이야기 교육」, 『문학교육학』 5, 101-122.
장인수(2013), 「1920년대 ‘편지’의 배치와 감수성의 문학」, 『한민족문화연구』 42, 437-470.
전용표(2008), 「역대 편지글의 읽기, 쓰기를 통한 의사소통 활성화 방안」,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용교(2009), 「감성사회의 도래와 고등학교 사회과교육의 방향」, 『교원교육』 25(4), 190-207.
정재찬·최인자·김근호·염은열·이지영·최미숙·김혜련·박용찬·남민우·김성진·조희정·박기범(2014), 『문학교육개론Ⅰ』, 서울: 역락.
최시한(2015),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문학과지성사.

- 최인자(1994), 「1920년대 초기 편지체 소설의 표현적 의미」, 『국어교육연구』 1(1), 123-141.
- 최혜실(1994), 『한국현대소설의 이론』, 서울: 국학자료원.
- 한기형·이혜령(2013), 『염상섭 문장 전집 1』, 서울: 소명출판.
- Bauman, Z. (2009), 『액체 근대』, 이수일(역), 서울: 도서출판 강(원서출판 2000).
- Chako, M. (2018), 『초연결사회』, 배현석(역), 파주: 한울엠플러스(주)(원서출판 2017).
- Elliott, A. (2007), 『자아란 무엇인가』, 김정훈(역), 서울: 삼인(원서출판 2001).
- Giddens, A. (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권기돈(역), 서울: 새물결(원서출판 1991).

서간체 소설의 문학교육적 의미

— 〈제야〉,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를 중심으로

김수지·김서울

이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편지’와 ‘서간체 소설’이 지니는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간체 소설의 문학교육적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이다. 서간체 소설은 편지글의 형식적·내용적 자질을 취하는 문학 장르이다. 이 연구는 서간체 소설이 특정 시대의 장르가 아니라 192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생산, 향유되고 있는 장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염상섭의 〈제야〉, 김초엽의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를 예시로 분석하여 서간체 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편지가 문학적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서간체 소설의 형식적 자질은 액자식 구성, 편지에 대한 직접 명시, 편지 형식의 차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서간체 소설의 내용적 자질은 고백서사와 개인의 내밀성, 자아 개념과 자아정체성의 성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장르적 특성을 바탕으로 서간체 소설의 문학교육적 가치를 고찰하고 문학교육에서의 활용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서간체 소설을 활용한 문학교육의 가능성을 문학 지식 습득과 문학 능력 증진을 위한 문학교육, 자기 성찰·계발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신장을 위한 문학교육, 작문교육·매체교육과 연계한 문학교육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즉시성과 유동성으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에 서간체 소설이 지니는 문화적 의미와 교육적 효용을 새롭게 밝히고 문학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향후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서 나

아가 실제적인 교육 내용과 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실천태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국어교육, 문학교육, 서간체 소설, 편지, 〈제아〉,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염상
섭, 김초엽, 자아정체성, 내밀성, 고백 서사

ABSTRACT

A Study on Literary Educational significance of epistolary novels

— Focused on “New Year’s Eve”, “Why Don’t the Pilgrims Come Back”

Kim Suji · Kim Seoyul

This study explores the literary educational meanings of the epistolary novel genre based on the cultural values of “letter” and “epistolary novel” in modern society. Epistolary novel is a literary genre that takes on the formal and other content qualities of a letter. This study noted that the genre is not limited to a particular era, but one that has been produced and enjoyed since the 1920s to the present day. The genre characteristics of the epistolary novel were explored by analyzing “New Year’s Eve” by Yum Sang-seop and “Why Don’t the Pilgrims Come Back” by Kim Choyup as examples. The formal qualities of an epistolary novel in the process of literary embodiment were divided into frame composition, direct representation of a letter, and borrowing the default format of the letter. The content qualities of the epistolary novels were divided into confessional narratives, the individual intimacy, the formation of self-concepts and self-identification. Based on these genre characteristics, it was intended to consider the literary value of the epistolary novel and explore the use of it in literary education. The possibilities for literary education using epistolary novels was presented in literary education to acquire literary knowledge, literary education to increase self-observation and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mprove literary ability, and literary education in conjunction with writing education and media educ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newly revealed the cultural meaning and educational utility of epistolary novels in a modern society represented by immediacy and liquidity and sought ways to utilize literary

education. To derive future educational implications, further research will be carried out to develop practical educational content and concrete practices.

KEYWORDS Korean Education, Literary Education, Epistolary novel, Letter, "New Year's Eve", "Why Don't the Pilgrims Come Back", Yum Sang-seop, Kim Cho-yup, Self-identity, Intimacy, Confessional narrative